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36호

**체육시민연대 논평 (2022.09.08)**

**前 국가대표 출신 피겨코치의 미성년 제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바라본  
“현장”과 “현상” 사이**

**빙상연명 “스포츠윤리센터 통해 조사 후 징계할 것”**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 기소**

장보인 연합뉴스 기자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규정**

**여전히 뜨거운 주중 대회 금지...실효성도 보호도 좋지만 ‘행복한 선수’ 키워야**

김호진 한스경제 기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전문대도 202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할 때 ‘학폭’ 반영한다**

김지연 연합뉴스 기자

**여지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

**쌍둥이 파문 그후... “서약서만으론 사실 확인 어려워, 답답하다”**

심혜진 스타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前 국가대표 출신 코치의 미성년 제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바라본 “현장”과 “현상”사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90년대부터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고 2003년에 지도자로 전향한 그는 2005년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혐의와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것을 지도자 결격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2022년 8월, 그는 자신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2019년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미투 사건 이후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1년간 활동하며 총 7차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각 부처에서 권고 이행 의지를 보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체육계는 아직도 인권친화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지도자는 선수를 폭행하고 선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 합숙소에서 후배들은 선배들의 옷을 모아 세탁하고 말 한마디에 먼 거리의 편의점을 다녀와야 한다. 성년이 되어 머리를 염색하고 파마를 하고 싶은데 지도교수와 감독은 “운동선수가 머리가 그게 뭐냐”며 다시 미용실로 돌려보낸다. 그러는 와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9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현장’에서 권고안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갖은 미사여구를 붙이고 저마다의 논리로 권고안 재검토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는 ‘현장’은 당장의 입상 실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기는 집단 같다. 운동부는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인식을 관철하려 하며 입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결과 선수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이라는 운동 스케줄을 하달받게 된다. 그들의 주장대로 ‘출석 인정 결석일수’가 늘어난다면 학생선수들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학교는 공문을 제출하려 가는 곳이 될 수도 있다.

학생선수의 ‘운동권’ 주장에 힘이 실릴수록 비인기 종목이나 훈련 공간대여에 어려움이 따르는 종목 선수들은 최악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이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 가려면 인권 침해 문제쯤은 참아야만 하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실제로 빙상 종목의 경우 운동 환경이 열악하고 지도자에게 막강한 권리가 독점돼 있다.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현장’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선수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사건을 덮거나 감추기 급급했고 그동안 선수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 급기야 가해자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같은 공간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또 지도자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맹과 협회, 나아가 그들이 그토록 목놓아 부르는 ‘현장’에 책임이 있고 그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에 수많은 운동선수가 한정된 메달을 두고 경쟁을 하니 치열해지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의 자녀가, 나의 제자가 그 메달을 따야만 한다고, 입상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의 자녀, 나의 제자가 살아갈 날은 길고 선수 생활은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재활이나 생리학에 관심이 있는 선수, 마케팅에 관심 있는 선수가 그 꿈을 키워 선수 출신의 ‘현장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선수들을 위한다면 선수들이 일반 학생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하고 체험하며 꿈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왜곡되고 과열된 우리나라 스포츠의 경쟁구조 속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선수들에게 인권 침해 문제를 마치 ‘성공에는 인내와 고난이 따른다’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운동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로 선수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도 안 된다. 선수들은 폭력과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선수들은 일반 학생과 같이 배우고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해야 한다. 이것이 스포츠 ‘현장’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 기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했다. 따로 민원이나 관련 제보가 들어온 건 없었다"며 "이 코치는 2021년까지 빙상연맹에 지도자 등록을 했지만, 올해는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사실 확인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연맹이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는 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인권 전문가의 의견, 구속 중인 가해자와 접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윤리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코치의 재판 진행 추이도 지켜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징계 수준에 대해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19년 쇼트트랙 등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국내·외 취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김호진의 적시타(打)]

# 여전히 뜨거운 주중 대회 금지... 실효성도 보호도 좋지만 '행복한 선수' 키워야

"스포츠 꿈나무들이 '행복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탁구 신유빈(18·대한항공)과 테니스 조세혁(14)은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는 공통점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 선수 모두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했다. 신유빈은 고교 진학을 포기한 뒤 실업팀에 입단했고, 조세혁은 중학교를 자퇴했다. 이들이 공부를 포기한 이유는 하나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 선수들은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출전 대회를 제외하곤 여타 대회에 출전하기 어렵다.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 불과하다.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는 3~5개 정도가 된다. 종목별로 대통령기, 회장기, 협회장배 등 예선전을 포함해 통상 2~4일간 치러진다. 1년 동안 1~2개 대회만 출전해도 무단 결석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병행한다고 해도 문제다. 수업에 치중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져 진학이나 실업팀 진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 소년체전 개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도자 등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일부 학생 선수의 진학 대신 자퇴를 불러일으켰다며 비판했다. 게다가 혁신위가 권고한 주말 대회의 경우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100% 주말 대회로 전환한 사례가 드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표했다.

최근 문체부는 혁신위 일부 권고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발표했다. 하지만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인권연구소와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체육시민연대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혁신위는 문체부 산하에 있었다. 이제 와서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깎아 내리는 형태는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세 단체와 뜻이 같은 한 체육인은 5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만 따져선 안 된다. 학생 선수의 진학과 지도자의 계약 구조도 살펴봐야 한다. 지도자의 계약은 선수의 실적에 기반한다. 선수가 큰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며 "그렇게 되면 감독은 오로지 성적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과잉훈련, 상시 합숙 등 관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A 고등학교 축구 지도자는 "현재 뜨거운 감자다. 주중 대회 찬반 의견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행복한 선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모 손에 떠밀려서가 아닌, 학생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선수 보호도 중요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빼먹었다.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강한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외 출입제한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생 외  
모든 인원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바랍니다.

## 전문대도 202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할 때 '학폭'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문대학이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학생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 선발시 교과성적, 출석분 아니라 학생선수 폭력 가해 조치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모집유보제'는 이번 입학전형 기본사항에도 반영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관련 고시에 따라 일정 기간 입학정원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성인학습자 등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정원의 전담학과를 운영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이번 기본사항과 주요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된다.

# 쌍둥이 파문 그 후... “서약서만으론 사실 확인 어려워, 답답하다”

최근 몇 년 새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학교 폭력(학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7년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23)을 시작으로 배구계, 축구계 등을 휩쓸고 다시 야구계로 퍼지는 모양새다.

지난해가 가장 충격이 컸다. 배구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작년 2월 V리그 여자부 이재영·이다영(26) 쌍둥이 자매의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증언과 폭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처도 미흡했다. 쌍둥이 자매는 사태 발생 초기에는 자신들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스스로 삭제했다. 그리고 되레 피해자들을 고소했다. 자매는 사과문을 쓴 것도 구단과 피해자의 요구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대중의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결국 쌍둥이 자매를 끝까지 감싸려 했던 당시 소속팀 흥국생명조차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흥국생명은 둘의 선수 등록을 포기하고, 자유신분선수로 등록하면서 사실상 방출했다. 대한민국배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무기한 선발 제외라는 징계를 내렸다. 한국에서 뭘 곳이 없어지자 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 시즌 그리스 리그 PAOK 테살로니키로 이적했다. 이재영은 무릎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고, 이다영은 시즌을 완주한 뒤 루마니아 리그 라피드 부쿠레슈티로 팀을 옮겼다.

이후 프로배구 남자부 박상하(36·현대캐피탈)와 송명근(29·OK금융그룹)·심경섭(31·은퇴) 등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배구계를 휩쓴 학폭 미투는 다른 분야에도 번졌다. 프로축구 K리그의 기성용(33·FC서울)도 학폭 논란에 휩쓸렸다. 기성용은 적극 반박 중에 있다. 명예훼손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다시 야구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두산 이영하(25)와 LG 김대현(25)이 재판판을 받게 됐다. 당시 두 선수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면서 재점화됐다.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학폭 논란은 분야를 넘나들며 큰 영향을 끼쳤고,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논란을 언급할 정도였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스포츠계도 학폭 예방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른바 '학폭 증명제'를 시행한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한국야구위원회(KBO) 등은 학폭 이력을 가진 선수에 대해 드래프트 참가와 구단 입단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결과에 따라 참가 제한부터 선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일단 선수들을 믿고 '과거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서약서를 받지만 추후 허위로 밝혀진다면 구단도, 연맹과 협회도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KOVO는 지난 5일 열린 V리그 여자부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선수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KOVO 관계자는 "선수 등록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았다. 학교장 날인이 돼 있다"며 "하지만 연맹으로서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선수들을 믿는 수밖에 없다.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후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가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KBO도 마찬가지다. 오는 15일 열리는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야구 한 구단 관계자는 "프로 신분이면 모를까, 아마추어 소속 때 일어난 일이라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선수들을 믿고 지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징계정보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 징계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올해처럼 서류를 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윤리센터, '선수등록 권한 갑질' 협회장에 징계 요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32457824&mediaCodeNo=258>

[레인보우 리포트]'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https://isplus.com/2022/09/08/sports/baseball/20220908003402887.html>

스포츠윤리센터, 장애체육인 대상 '약 2만여 명' 실태조사

<http://osen.mt.co.kr/article/G1111938874>

[9월호] 당신의 선수는 안녕하십니까? ②

<http://www.rooki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95>

골프클럽 판매 82% 급증...유통업계 가을 '스포츠 대전' 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036>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英 스포츠 일정 중단 등 '애도 물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092389i>

전 세계 스포츠 팀 가치 1위는 7년 연속 NFL 댈러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9034500007?input=1195m>

한국e스포츠협회 '3급 e스포츠 심판 자격연수' 교육생 모집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7\\_0002006104&cID=13008&pID=131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7_0002006104&cID=13008&pID=13100)

호주 언론 "형제복지원 박원장 가족, 140억대 스포츠센터 소유"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5085400104?input=1195m>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